

<신 간 안내>



책명 : 《漢字漢文教育論叢 上·下》

역자 : 鄭愚相(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판형 : 신국판

판형 : 上卷(462면), 下卷(512면)

가격 : 각권 25,000원

발행처 :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02-762-8401)

본 논총論叢은 저자가 한자·한문漢字漢文 교육에 종사한 이래로, 여러 논문집에 발표했던 논고論考들 중에서 대표성 있는 논고들만 선별하여 두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교육자로서 한자·한문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활동하였다. 한문이 지닌 요체要諦를 한자·한문 교육의 원리로 삼아 나름대로의 입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일관되게 한자·한문 교육을 연구하고 지도해 왔으며, 새로운 한문과漢文科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저자는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생활의 지혜와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와 한문에 대한 학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자와 한문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至大하고, 우리 조상들이 저술한 수많은 전적典籍들이 대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양문화권東洋文化圈의 조화와 우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을 위해서도 한자·한문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본 논총은 저자의 이러한 신념이 잘 반영된 책으로, 한문과漢文科 교육의 개념概念 및 사적史的인 고찰考察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 한자·한자어·한문의 구조와 원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용 기초한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부록으로 북한의 교육한자, 미국 예일대에서 선정한 기초한자, 일본의 개정 상용한자, 우리나라 교육용 기초한자의 간화자簡化字 등의 각종 자료를 실어 놓아 한자·한문 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오늘날 변화된 시대 환경과 발전된 학문 수준에 맞추어 한자·한문의 교육 방법도 기존의 단순 암기식 학습 방법을 탈피하여,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총은 그 필요성에 대한 좋은 안내서가 될 뿐만 아니라, 한자·한문 교육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가 총 망라되어 있다.

저자 정우상(鄭愚相, 본회 고문, 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선생은 서울교육대학교 등에서 한자·한문 교육에 대한 지도와 연구를 하였으며, 교육용 기초한자 선정 작업과 조정, 한문과漢文科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심의, 중등 한문 교과서의 개발, 한문과 교육과정의 해설서 발간, 한자한문교육학회의 창립과 학회활동 등에 참여하였다.